

앱 꺼도 업무는 계속… 빅테크, 능동형 AI 에이전트 경쟁

오픈AI ‘닷츠’, 앱 종료 후에도 능동적 연구하고 필요사항 전달

메타 ‘뮤즈’, 정보 기억해 먼저 제안 현재 공식 제공 지역에 韓 미포함

스페이스X ‘그록봇’, 여러 AI 협업

메타와 오픈AI, 스페이스XAI가 사용자의 목표를 기억하고 대화가 끝난 뒤에도 일을 이어가는 인공지능(AI) 서비스를 내놓고 있다. 생활 정보를 기억해 제안하는 메타 ‘뮤즈’, 업무 변화를 살펴 보고하는 오픈AI ‘닷츠’, 여러 비서가 협업하는 ‘그록봇’이 대표적이다. 국내 이용 가능 여부뿐 아니라 무료 제공과 기존 구독 연계 등 유료화 방식에도 차이가 있다.

1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오픈AI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닷츠(dots)’를 공개했다. 이용자가 만들어 쓰는 개별 에이전트는 ‘닷(dot)’이라고 부른다.

앞서 메타는 지난달 8일 ‘뮤즈’를 선보였다. 두 서비스는 자체 클라우드 컴퓨터와 브라우저를 활용해 앱을 닫은 뒤에도 맡긴 일을 이어가도록 설계됐다.

뮤즈는 여행 예약과 이메일 발송부터 장기 목표 관리까지 지원한다. 메타는 인



오픈AI의 AI 비서 ‘닷’ 초기 대화 화면. 대화하지 않을 동안에도 필요한 일을 살피고 새로운 소식이나 질문이 있으면 알려주겠다고 안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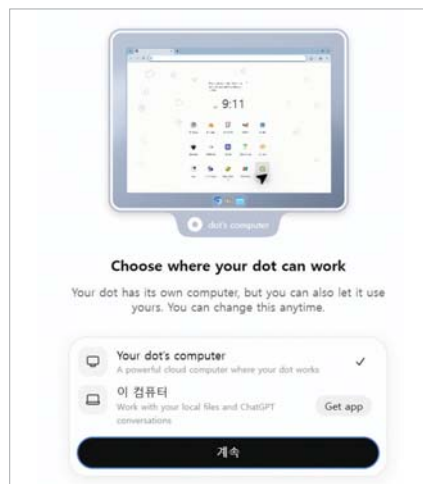
스타그램에 저장한 요리 영상을 장보기 목록으로 바꾸거나, 친구의 식사 제한 사항을 기억해 모임 메뉴를 제안하는 사례를 소개했다. 한 번 언급한 정보를 기억해 별도 요청 없이 제안하는 방식이다.

테크 유튜버 네이트 허크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채널에 공개한 영상에서 “부모님이나 기술에 전혀 익숙하지 않은 지인들에게 추천한다면 아마 뮤즈를 권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닷츠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나 기타 사항들을 일일이 처음부터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느낌을 준다”며 기존 챗GPT·코덱스 이용 환경과의 연결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닷츠는 고객 의견을 살펴 프로그램 오류를 수정·시험하거나, 새 연구 자료에 맞춰 분석을 갱신하는 기능을 내세운다. 진행 상황과 질문, 결정이 필요한 사항을 먼저 메시지로 전달한다. 이용자가 작업 중이지 않을 때 연결된 앱을 살피는 ‘능동적 연구’는 읽기 전용 도구를 사용한다. 이용자는 특정 행동을 허용·차단하거나 승인을 요구하는 규칙을 설정할 수 있다.

유튜브 채널 ‘단테랩스’를 운영하는 단



오픈AI 닷츠(Dots) 설정 화면. 닷츠 전용 클라우드 컴퓨터와 이용자 컴퓨터 중 작업 공간을 고를 수 있다. /챗GPT 화면 캡처

테는 지난달 30일 공개한 영상에서 “여러 일을 한꺼번에 맡겨서 알아서 챙겨준다는 점은 확실히 편했다”고 말했다. 다만 “한국어 음성이 아직 조금 어색했다”, “진행 상황 잘못 보고했다가 스스로 정정한 적들도 좀 있었다”며 사용 과정에서 발견한 한계도 짚었다.

스페이스XAI의 ‘그록봇’은 이메일 관리와 경비 처리, 오류 수정 등 역할을 나눈 여러 AI가 동시에 일하고 업무를 넘기는 기능을 강조한다. 사용자가 업무 과정을 보여주면 반복 절차로 저장해 일정에

맞춰 다시 수행할 수 있다. 회사는 중단된 일을 다시 챙기거나, 사용자의 요청 전에 업무를 찾아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뮤즈의 공식 제공 지역에 현재 한국은 포함되지 않았다. 닷츠는 현재 한국에서 순차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처음 생성할 때는 데스크톱 앱이나 웹을 사용해야 한다. 그록봇은 한국 앱스토어에서 배포돼 유료 계정의 이용 자격을 연결해 사용할 수 있다.

유료화 방식도 다르다. 뮤즈는 무료로 시작해 주간 사용량 1억 토큰을 제공하고, 유료 구독으로 사용량을 늘리는 구조다. 닷츠는 월 100달러부터인 챗GPT 프로와 비즈니스 프리미엄, 엔터프라이즈 요금제에 포함됐다. 닷과의 대화는 챗GPT 사용 한도에서 차감되지 않지만, 닷이 실행하는 코덱스·챗GPT 워크 작업에는 기존 한도가 적용된다. 엔터프라이즈는 별도 계약 요금이 적용되며 관리자가 닷 시험 서비스를 활성화해야 한다. 그록봇은 월 30달러인 슈퍼그록이나 월 20달러인 커서 프로 등 기존 구독에 포함되며, 한도 초과 사용분은 커서를 통해 청구된다.

/김보민 기자

kbm@metroseoul.co.kr



KT, 병원 맞춤형 ‘의료 표준모델’ 공개

예약부터 진료행정 등 AI 지원 의료진 진단·판독까지 확장 계획

KT가 병원의 수요에 맞춰 통신·컴퓨팅 인프라와 데이터 플랫폼, 인공지능(AI) 서비스를 결합한 ‘의료 표준모델’을 공개했다고 1일 밝혔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65세 이상 인구는 약 21%다. 2024년 기준 만성질환 진료비는 전체 진료비의 80%를 차지했다. 이처럼 진료비에 대한 국민의 부담이 커지자 이를 AI로 해결하기 위해 KT가 의료 표준모델을 선보인 것이다.

의료 표준모델은 ▲AI 환자 어시스턴트 ▲간호 스케줄 에이전트 ▲수술실 스케줄 에이전트 ▲진료행정 에이전트 등으로 구성됐다.

AI 환자 어시스턴트는 AI 음성봇이 24시간 문의에 자동으로 응답하는 서비스다. 증상을 분류해 예약 접수를 돕고, 퇴원 뒤 관리 방법도 안내한다. KT는 내년



서울 시내 한 병원에서 KT 직원이 병원 관계자에게 ‘의료 표준모델’을 설명하는 모습. /KT

1분기에 의료 지식 기반 검색 증강 생성(RAG) 기능을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간호 스케줄 에이전트와 수술실 스케줄 에이전트는 의료진의 업무를 지원한다. 의료 데이터 플랫폼도 구축한다. 이 플랫폼은 전자의무기록과 의료영상, 검사·연구 데이터를 모아 저장하고, 의료정보 교환 표준에 따라 표준화·연계한다. 이를 통해 의료 데이터 검색, AI 학습용 데이터 구

축, 의료 AI 개발·검증 환경을 지원한다.

진료행정 에이전트는 의료진과 환자의 진료 대화를 인식·분석해 진료기록을 작성하고, 진료과별 서식을 반영한다. 의료진이 확인·승인하면 전자의무기록과 검사·처방 시스템에 연동된다. 진료기록 작성부터 청구까지 이어지는 행정업무를 자동화한다는 계획이다.

KT는 의료 전문 파트너사의 제품과 AI 인프라를 결합해 의료진의 진단·판독과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영역까지 표준모델을 확장할 계획이다. 의료 전문 파트너사의 제품에 자사 데이터 플랫폼,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그래픽처리장치(GPU) 컴퓨팅 등의 AI 인프라를 결합하는 방식이다. 예시로는 환자의 임상·영상 정보를 바탕으로 진료지침과 치료 근거를 제시하는 ‘AI 암진단 임상 의사결정지원시스템(CDSS)’, 검사 중 내시경 영상을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AI 내시경 판독’을 들었다.

/김보민 기자

SK AX, 임직원 AI에이전트 개발·사용 교육

‘AI 부트캠프 바이브’ 프로그램 선행 모든 직군 4주간 바이브코딩 실습

SK AX가 코딩 지식이 없는 임직원도 직접 AI 에이전트를 개발해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프로그램 ‘AI 부트캠프 바이브’를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바이브코딩을 가르친다. 바이브코딩은 원하는 기능을 자연어로 설명하면 생성형 AI가 코드를 작성해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식이다. 개발 조직뿐 아니라 인사·기획·마케팅·영업 등 모든 직군이 대상이다. 교육 기간은 4주다. 교육생은 AI 부트캠프 플랫폼에서 강의를 듣고 실습하며 AI 에이전트 설계 과정을 배운다. 이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에이전트를 직접 만든다.

실습부터 과제 제출, 평가까지 전 과정이 AI 기반으로 운영된다. 교육생마다 전담 멘토 역할을 하는 AI 에이전트가 배정

된다. 교육생은 AI 멘토의 안내에 따라 채팅창에 요구사항을 입력하고, ‘미리보기’로 구현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AI 멘토는 교육생의 진도와 이해도, 실수 패턴 등을 기억해 용어 설명이나 코칭 수준을 조절한다.

개발 과제는 교육생이 자신의 실제 업무를 분석해 선정한다. 먼저 업무 과정을 세부적으로 분석해 반복적이거나 시간이 많이 드는 업무를 찾는다. 그중 AI 적용 효과가 큰 과제를 선별해 에이전트를 개발한다.

교육생이 만든 AI 에이전트를 회사 시스템과 연동하려면 SK AX가 별도 서비스로 제공하는 ‘컨텍스트 오퍼레이터’를 이용하면 된다. 컨텍스트 오퍼레이터를 통해 사내 이메일이나 데이터 공유·저장소 등의 시스템에 에이전트를 연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직장 동료들과 AI 에이전트를 공유할 수도 있다. /김보민 기자

네이버웹툰, 김용수·김규남 공동대표 체제

웹툰 엔터테인먼트 리더십 개편 연장선

네이버웹툰이 김용수·김규남 공동대표 체제로 전환한다. 김준구 웹툰 엔터테인먼트 CEO는 한국 법인 대표에서 물라나 글로벌 사업과 장기 성장 전략에 집중한다.

웹툰 엔터테인먼트의 한국 법인인 네이버웹툰은 지역 맞춤형 성장 전략을 고도화하고 전사 차원의 시너지를 강화하기 위해 1일자로 대표이사들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신임 공동대표에는 김용수 웹툰 엔터테인먼트 프레지던트와 김규남 최고관리책

임자(CAO)가 선임됐다. 김용수 공동대표는 기존 프레지던트 역할과 네이버웹툰 대표를 겸임한다. 김규남 공동대표는 웹툰 엔터테인먼트 최고위험관리책임자(CRO)에서 CAO로 직책을 변경하고 네이버웹툰 대표를 함께 맡는다.

이에 따라 김준구 CEO는 네이버웹툰 대표이사 겸임을 끝내고 웹툰 엔터테인먼트 이사회 의장과 CEO 역할에 집중한다. 장기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각 지역 법인의 경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인사는 지난 3월 단행한 웹툰 엔터테인먼트 리더십 개편의 연장선이다.



김용수 김규남
네이버웹툰 공동대표 네이버웹툰 공동대표

당시 웹툰 엔터테인먼트는 프레지던트 직책을 신설하고 최고전략책임자(CSO)였던 김용수 공동대표를 선임했다. 김준구 CEO가 장기 성장과 미래 전략에 집중하고 김용수 공동대표가 사업 운영 효율화와 실행을 담당하는 구조다.

/최빛나 기자 vitna@

美 제너럴 애틀랜틱과 ‘맞손’

LG CNS가 글로벌 투자회사 제너럴 애틀랜틱과 손잡고 기업용 소프트웨어(SW)와 인공지능(AI) 기술 기업에 대한 투자를 추진한다.

LG CNS는 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 위치한 제너럴 애틀랜틱 본사에서 공동투자 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체결식에는 현신균 LG CNS 사장과 마틴 에스코버리 제너럴 애틀랜틱 공동 사장 겸 글로벌 성장 자산 총괄 등 주요 경영진이 참석했다.

양사는 제조·금융·물류·에너지 등 다양한 산업의 핵심 업무를 지원하는 기업용 S

W·AI 기술 기업을 발굴하고 투자 가능성을 검토한다.

LG CNS는 이번 협력을 통해 기존 IT 서비스와 AI 전환(AX) 사업에 더해 기업용 SW 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적재산권(IP)을 보유한 SW 자산을 확보해 라이선스와 구독 등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매출 기반을 넓히고, 사업 구성을 다변화한다는 전략이다.

확보한 SW 기술과 고객 기반을 활용해 IT서비스·AI 전환과 SW를 연계한 사업도 확대할 구상이다.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까지 고객 접점을 넓히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할 방침이다. /김보민 기자